

■ 모교 광주여고에 규방갤러리 오픈... 한복 디자이너 오점희씨



한복연구가 오점희씨가 모교인 광주여고에 만들어진 규방공예 갤러리에서 후배들과 담소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청소년들 우리문화 소중함 느끼길”



화려한 자수가 새겨진 골무, 아름다운 오방색으로 만든 작은 두루마기, 장수·다산 등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각양각색의 노리개까지... 지난 2월 광주시 서구 화정동으로 터전을 옮긴 광주여고(교장 정우성) 본관 4층에 위치한 '규방공예 갤러리'에 가면 화려함이 돋보이는 다양한 규방 공예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규방공예는 규방(閨房)이나 내당(內堂)이라고 불리는 여자들의 생활 공간 속에서 여인들이 바느질과 자수 등의 수공예 작업을 통해 복식이나 소품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규방공예 갤러리는 한복 디자이너 오점희(64)씨가 기증한 작품들로 만들어진 공간이다. 오씨가 직접

골무·두루마기·노리개 등 80여점 기증 테이블도 배치 학생들 작품과 친근하게

만든 모시 커튼의 은은함이 어우러진 갤러리는 전시관 뿐 아니라 학생들이 잠시 쉬었다 가는 장소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머물렀던 광주시 동구 서석동 시대를 접고, 화정동으로 터전을 옮긴 광주여고는 졸업생들에게 후배들을 위한 기념품을 부탁했고, 오씨는 흔쾌히 자신이 오랫동안 소장해 왔던 규방공예품들을 내놓았다. “오래 전부터 고급스러운 우리 문화가 사라져 가는 게 안타까웠어요. 우리 후배들이 수시로 이런 작품들을 접하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느꼈으면 합니다. 돌복이나 노리개 같은 건 요즘도 다 사용하는 것들이잖아요. 우리 것들이 얼

마나 아름답고 수준 높은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 기증품으로 출품한 갤러리를 만들어 주신 학교측에도 고마움을 느낍니다.” 전시된 작품은 규방공예 전문가들이 직접 제작한 골무, 안경집, 미니 한복, 노리개 등 80여점. 일일이 한뼘 한뼘 수놓은 작품들에서는 정성이 느껴진다. 또 오씨의 화려함이 돋보이는, 오씨가 직접 만든 조각보 등도 만날 수 있다. 특히 갤러리 벽면 뿐 아니라 학생들이 쓸 수 있는 테이블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해 작품들과 훨씬 친근해지도록 배려했다. “규방공예 작품들은 특히 그 색깔이 아름다워요. 황·청·백·적·흑

등 화려한 오방색이 어우러진 작품들을 자주 접하다 보면 학생들의 감성도 풍부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서 창의적인 발상들도 나올 것 같아요.” 조선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후 패션 분야에서 32년간 일했던 오씨는 10여년 전 한복으로 눈길을 돌렸다. 새로운 길을 간다는 건 조금 무모하기도 했지만 성균관대 공중복지연구소에 등록을 했고 도전과 열정으로 새로운 작업들을 진행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우리 문화가 사라지는 게 안타까웠어요.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롭게 도전하는 게 힘들기는 했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었죠.” 오씨는 광주여고 뿐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다양한 전통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대 출신 사진작가 박형근씨 '다음 작가상'

윤·호수·주택가 시선 담아



광주대 출신 사진작가 박형근(37·사진)씨가 제9회 다음작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다음작가상 공모는 인터넷 포털 다음 커뮤니케이션스 후원으로 박건희 문화재단이 주관하며, 수상자에게 작품 및 작품제작비용 3000만원을 포함해 총 4500만원



박형근 작 'Tenseless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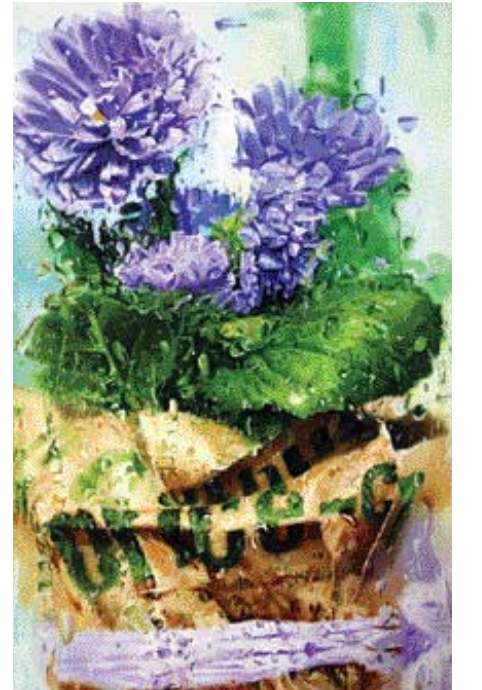
이 지원된다. 박씨는 그동안 숲과 호수, 주택가 등 주변의 자연을 환상과 현실이 혼재된 시선으로 담아왔다. 또 초기작인 '무제'(Untitled)에서 '텐세리스'(Tenseless) 그리고 '항해'(A voyage) 시리즈까지 강렬하고 아름다운 색깔로 자연이 가진 신비로운 느낌을 살리고, 인공물을 설치해 심리적인 공간을 연출하는 방식을 일관되게 선보였다. 박건희 문화재단 이사장인 심사위원장 구본창씨는 심사평을 통해 “박형근 작가는 런던 유학 후 남다른 섬세한 시각으로 주목받아왔다. 그의 사진에 등장하는 설치물이

나 물감 등을 사물을 관찰하는 예리한 시선과 컬러에 대한 탁월한 심미안을 보여주고 나아가 우리를 깊은 미로로 인도한다”고 평했다. 한편 박씨는 광주대 사진학과와 동대학원 졸업 후 영국 런던으로 유학, 골드스미스 컬리지 소속 이미지&커뮤니케이션학과를 최우수 졸업했으며 국내에서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쳐왔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신진 작가들 '밖을 향한 첫 발걸음'

롯데갤러리 26일까지 박성배 등 4명 초대전

광주롯데갤러리는 26일까지 '제2회 신진작가 초대전-젊은 시선'을 연다. 지역 신진작가들의 힘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전시로 롯데화랑에서 진행되는 대학미술전의 연장선상이다. '밖을 향한 첫 발걸음'이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전시에는 지역인재 육성기회에 선발된 박성배(전남대 조소), 박성완(전남대 서양화), 우육경(광주대 사진영상), 홍은표(조선대 회화)씨의 작품이 선보인다. 박성배 작가는 인간을 먹이사슬의 권력자이자 해악자로 해석한 작품을 선보인다. 'ear flower'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꽃잎이 사람의 귀를 닮았다. 생존을 위한 방법으로 천적인 인간의 모습을 닮아가는 동식물을 표현한 것. 피기스럽고 모호한 형태로 진화해가는 동식물은 잉여이익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의 또 다른 자화상이다. 박성완씨의 '공시장 시리즈'는 문화전당 건립 공사가 진행되는 구도청을 담았다. 흑백의 거친 화면과 황갈색 불투명함, 밤의 어둠으로 칠해진 공시장 풍경은 '공상' 혹은 '건설'에 대한 은근한 저항의 의지와 연결되는 듯하다. 사진을 전공한 우육경씨는 'The Room'이라는 제목으로 성장기 여학생의 방을 여과 없이 보여주며 홍은표씨는 투명한 재질 뒤로 물기를 머금은 피사체를 클로즈업한 작품을 선보인다. 문의 062-221-1808.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홍은표 작 'RE-CREATION'

'가시꽃 사랑' '님의 노래' 배워보자

광주·전남우리가곡 부르기 7월 행사

오늘 호남신대 티브라운

광주전남우리가곡 부르기 7월 행사가 9일 오후 7시30분 호남신학교 카페 티브라운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그리운 마음'으로 널리 알려진 김동환 작곡가(중앙대 명예교수)의 곡 '가시꽃 사랑'과 '님의 노래'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 테너 임영빈씨를 초청, '그리움 중에', '벚꽃노래'를 감상하며 박진영·박상휘·이윤조씨 등 지역 아마추어 성악가들의 무대도 마련돼 있다. 그밖에 '옛 동산에 올라', '기다리는 마음', '그대 있음에' 등 우리에게



김동환 교수

친숙한 곡을 함께 불러보는 시간도 갖는다. 한편 8월에는 화순 인하연수원에서 '사랑 나눔을 악회'를 가질 예정이다. 우리가곡부르기는 매일 둘째주 금요일 열리며 회비 1만원을 내면 간단한 먹을거리와 차를 즐길 수 있다. http://cafe.daum.net/gjkrsong. 문의 016-694-459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 녹색환경합창제 오늘 남구문예회관

한국환경노래보급협회(회장 박영호)가 주관하는 제11회 대한민국 녹색환경합창제가 9일 오후 7시 30분 광주남구문예회관에서 열린다. '노래는 시가 되고 시는 노래가 되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합창제에서는 광주여성합창단이 가곡 '섬집아가기'로 문을 열고 광주 CBS 권사합창단, 광주 엠 하프 챔버 콰이어, 광주 익투스 코랄 등이 무대에 선다. 또 북구여성합창단과 서구 여성합창단의 무대도 준비됐다. 합창단들은 '목장길 따라', '외쳐 노래하라' 등 외국민요와 '도라지꽃', '고향의 봄' 등 귀에 익은 우리 가곡을 선사한다. 피날레 무대에서는 연합합창단이 청중과 함께 가곡 '보리밭'을 부른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계곡물에 발 담그고 책 읽는 재미

인터넷 서점들 휴가철 앞두고 다양한 이벤트

휴가철 해변의 파랗고 아래서나 계곡물에 발 담그고 읽는 만한 책을 한 권씩 준비하면 어떨까. 서점들이 여름 휴가철 대목을 맞아 일제히 이벤트 행사에 돌입했다. 기회를 잘 활용하면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을 싼값에 사고 텀으로 사은품

등 다양한 혜택도 챙길 수 있다. 교보문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오는 28일까지 여행 가이드북과 여행 에세이 등 추천 도서를 구매하면 추천을 통해 클래식 음반, 여행 파우치 등을 준다. 인터넷 서점 예스24는 다음 달 17

일까지 '전격 휴가 작전' 이벤트를 진행한다. 국내 및 해외 여행 정보를 담은 책들을 소개하고 해당 도서를 구매하면 여행 지도, 여행용 정리세트 등을 선물로 증정한다. 또 오는 20일까지 유아, 어린이, 가

정 및 생활 분야의 도서를 최고 50%까지 할인 판매한다. 이 기간에 행사 도서를 3만원 이상 사면 '이재복의 옛이야기 교육서'를, 5만원 이상 구매하면 레인 부츠와 우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알라딘은 창립 11주년 기념 이벤트를 열고 5만원 이상 사면 탁상용 선풍기, 탁안용 물통 세트 등을 선착순 총 1만4000명에게 준다. 또 여름 방학을 맞아 오는 25일까지 참고서 기획전을 열고 구매금액에 따라 합인쿠폰과 물병, 슬리퍼, 정리함 등을 선물로 준다. /연행뉴스

Advertisement for '슬로시리 증도' (Slowly to Jeongdo) featuring a beach scene with a thatched roof and a table listing prices for various items like '시들머스-영도리도 화수사우나' and '시들머스-스승문명호텔전대'.